

Exploring the Realities and Direction of Re-education for the Faithful within the Korean Catholic Church in Response to the Contemporary Demands of the Ecological Crisis: Through the Integration with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Hanseok Seo*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Abstract

[Objective] This study explores the direction of re-education of the faithful in the Korean Catholic Church, integrating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in response to the contemporary demands of the ecological crisis.

[Contents] This study first diagnoses the reality of the re-education of the faithful in the Church through data such as the ‘Statistical Analysis Report of the Korean Catholic Church’ and ‘Religious Consciousness and Faith Life of Catholics’, analyzes the practice of Pope Francis’ ecological theology and the response to the ecological crisis of the Korean Catholic Church, and proposes the idea of transforming the existing re-education of the faithful into a model of Catholic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that revives the call of the times.

[Conclusions] The re-education in front-line parishes must be a lifelong education for cultivating global citizenship(“Catholic civic education”) at the social and ecological levels, where the common consensus(“Synodalitas”) is realized through mutual learning. To achieve this, Catholic civic education should be actively utilized through various organizations and committees that engage in ecological environmental movements inside and outside the Church.

[Keywords] Ecological crisis, Re-education of the faithful, Lifelong education,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Catholic civic education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Research Fund of 2023.

* **Corresponding to** Hanseok Seo (Associate Professor, Catholic Colleg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E-mail: shsjohn@daum.net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s ©Korean Association for Religious Education

생태 위기의 시대적 요청에 응답하는 한국가톨릭교회의 현실 진단과 신자 재교육 방향성 모색: 세계 시민교육(Global Citizenship Education)과의 접목을 통해서

서한석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학부대학 교수

요 약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생태 위기의 시대적 요청에 응답하는 세계 시민성 함양 교육과 접목된 한국가톨릭교회의 신자 재교육의 방향성을 모색한다.

[연구 내용]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우선 ‘한국천주교회 통계 분석 보고서’와 ‘가톨릭 신자의 종교의식과 신앙생활’ 등의 자료를 통해서 교회 내 신자 재교육의 현실을 진단하고, 가톨릭 보편교회를 대표하는 교황 프란치스코의 생태 신학의 실천적 행보와 지역교회로서 한국가톨릭교회의 생태 위기에 대한 대응책을 분석하면서 기존의 신자 재교육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가톨릭 세계 시민교육의 모델로 전환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결론]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한국가톨릭교회 내 신자 재교육은 지속적인 평생교육 차원의 신앙교육과 신앙과 일상의 실천이 이어지는 통합교육이 되어야 한다. 또한 ‘시노달리타스’라는 공동합의성이 실현되는 상호 배움의 교육과 개인적, 사회적, 생태적 차원을 포괄하는 세계 시민성 함양 교육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가톨릭 시민교육은 첫째, 실천적인 생태운동을 통해서 인간의 발전문제와 사회문제를 공동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둘째, 교육 참가자가 각종 정보 교환 시스템을 통해 생태 위기 감수성을 함께 공감하면서 스스로 직접 수행해야 할 일을 소홀하게 여기지 않게 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특별히 일선 본당의 신자 재교육이자 평생교육인 가톨릭 시민교육은 교회 안팎에서 생태환경운동을 조직적으로 실천하는 다양한 단체 및 전담 기구 그리고 각종 위원회와 적극적으로 연계하고 그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주제어] 생태 위기, 신자 재교육, 평생교육, 세계 시민교육, 가톨릭 시민교육

Received November 12, 2023 / Revised December 07, 2023 / Accepted December 21, 2023

I. 서론

2020년 초 코로나19가 창궐하기 시작할 무렵, ‘제도 종교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종교 내부와 외부에서 들려오기 시작하였는데, 이것은 종교가 이 시대에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질문하는 계기가 되었다. 2021년 중반 IPCC¹⁾ 6차 보고서는 지구의 기후 위기에 대한 최후통첩과 같은 메시지를 전했고, 전 지구적 협력을 요청하는 국제회의들이 등장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들은 우리에게 닥친 위기감이 얼마나 심각한지 가늠해 볼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은 종교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부여할 수 있다. 곧 종교에서 축적된 전통적 맥락 안에서 지혜와 실천이 현대적으로 재조명되어야 하며, 그럼으로써 개인주의적이고 국가 이기주의적 사고가 만연한 세상에 대해 문화적이고 평화적인 생태적 관점이 전 지구 공동체에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Catechism of the Catholic Church, CBCK trans., 2013: 714).

교황 프란치스코는 가톨릭교회를 대표하여 생태 위기에 대항하는 종교의 역할을 몸소 실천하면서 국제적 연대와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신앙과 삶의 통합을 이루어 나가야 할 한국가톨릭교회의 현실은 생태 위기 극복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교육”조차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특별히 모든 신앙인들로 하여금 상호 관계와 상호의존성이 복잡해지는 상황(The Second Vatican Council, CBCK trans., 2018: 435-437) 속에서 세계의 문제를 신앙 안에서 고민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할 한국가톨릭 신자 재교육의 현실은 더욱 심각하다. 일회적인 특강과 주입식 강의 교육에 그치는 등 교회 내에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성인들을 위한 체계화된 심화 교육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Pope Francis, CBCK trans., 2015: 74-75)라는 교황 프란치스코의 외침이 배움과 실천의 장으로 연결되는 기회가 부족한 것이 한국가톨릭교회의 현실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현재 한국가톨릭교회의 신자 재교육의 현실을 진단해 보고, 기후 행동의 흐름 속 가톨릭 보편교회의 추세와 이를 반영한 한국가톨릭교회의 발자취를 살펴보면서 한국교회가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신자 재교육의 모습을 논의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세계 시민성 함양을 위한 교육’의 비전을 알아보고, 신자 재교육을 평생교육 차원의 한국가톨릭 시민교육 모델로 전환할 토대를 제공하고자 한다.

1)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세계기상기구와 유엔환경계획이 공동으로 설립한 유엔 산하의 국제 협의체. 세계적인 기후변화와 전 지구적 위협을 평가하고 국제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설립되었다(Naver Knowledge Encyclopedia, 2022.3.8.).

II. 한국가톨릭 신자 재교육의 방향성 모색

1. 한국가톨릭 신자 재교육의 현재

한국가톨릭교회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1965)의 정신에 따라 교회의 쇄신에 중점을 두면서, 특별히 성직자 중심주의를 탈피하고 교회 내 평신도(일반 신자) 사도직을 강조하는 평신도 재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교리교육을 진행했다. 이러한 평신도 재교육은 평신도의 전인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 교육이다(Kim, 2016: 42-79). 그러나 한국가톨릭 신자 재교육의 현실은 여러 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는데, 본고는 교회 내의 다양한 분석 자료를 통해서 그 문제점들을 지적해 볼 것이다.

한국가톨릭교회의 신앙교육을 통계 수치로 정리하고 있는 「한국천주교회 통계 2022 분석 보고서」(CBCK, 2022.12.31.)에 따르면, ‘주일학교’를 제외하고 ‘성인교육’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교육 항목은 ‘꾸르실료, 성령쇄신운동, 성서사도직, 신앙 강좌, 피정, 혼인강좌, M.E., 기타’로 표시되어 있다. 보고서의 내용이 매우 간략히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기타’에 속한 교육이 무엇인지 정확한 분석은 어렵지만, 집계된 내용을 보면 신심 운동에 해당하는 교육의 일부와 성경 관련 교육 외에는 ‘성인교육’이 대부분 일회성으로 특정 기간에만 이루어지는 교육으로 추정될 수 있다.

2008년에 가톨릭평화신문이 기획 특집으로 두 차례에 걸쳐 보도한 ‘[지금 우리 교회는] 신자 재교육’(CPBC, 2008.3.9; CPBC, 2008.3.16.)이라는 기사의 내용은 비록 십여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아직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한국가톨릭 신자 재교육의 현실을 보여준다. 교회의 신앙교육 시스템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사의 내용이 현재에도 유의미한 시사점을 주는데, 그것은 무엇보다 ‘예비신자 교육과정’ 이후의 ‘체계적인 교육’이 없다는 것이다. 기사는 예비신자 교리교육만으로는 확고한 신앙을 심어주기에 부족하며, 이것이 신앙적 기반이 허술해지는 원인이 되어 신자들의 냉담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대부분 신자들이 예비신자 교육을 마치고 나면 마치 신앙교육의 전부를 수료한 것처럼 교회에서 그 이후의 과정이 단절된다. 본당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지속적인 재교육 과정은 없고, 본당 내 단체 중심의 신앙교육이나, 신심활동을 위주로 하는 모임 외에는 교육과정이 추가될 여력이 보이지 않는다. 전례력에 따라 특정 시기에 신자 재교육이라는 이름의 특강이 간헐적으로 열리는 정도에 그친다.

가톨릭신문사 창간 90주년을 맞아 2017년에는 가톨릭신문사와 주교회의 한국가톨릭사목연구소가 제4차 ‘가톨릭 신자의 종교의식과 신앙생활’(Catholic News, 2017.4.2.)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 30년 간의 신자들의 의식 변화 추이를 알려준다. 교회의 시스템은 거의 변하지 않았는데, 신자들의 의식의 변화 양상은 사회변화의 흐름에 따라 급격하게 바뀌었음을 보

여준다. 또한 초고령 연령비율이 높은 사회로 진입하면서 교회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조사 내용 가운데 각종 ‘신자 재교육 프로그램 참여도’라는 항목이 있는데, ‘자주 참여한다’와 ‘가끔 참여한다’의 비율 합계를 기준으로 할 때, ‘본당에서 주관하는 교육’의 신자 참여비율이 69.5%로 가장 높았고, ‘교구(지구)에서 주관하는 교육’ 참여율은 39.8%로 나타났다. 조사 응답자들이 성당 활동을 꾸준히 하는 ‘핵심 신자 층’에 속해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실제 참여율은 이보다 훨씬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나마 유의미한 해석은 본당에서 주관하는 교육의 참여도가 교구(지구)의 교육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교회가 사회 현실 문제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견해’에서도 ‘찬성’ 71.7%, ‘반대’ 28.3%로 찬성 비율이 월등히 높으며, ‘사회정치적 현안에 대해 교회와 정부의 입장이 다를 때 어느 쪽을 따르겠는가’라는 조사에 대해서 ‘무조건 교회의 입장을 따를 것이다’와 ‘대체로 교회의 입장을 따를 것이다’와 같은 ‘교회 입장을 따르겠다’는 의견이 55.2%로 신자들이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별히 본 연구가 사회의식과 관련된 신자들의 응답들을 살펴본 이유는 이러한 결과가 교회와 사회를 연결하는 새로운 신자 재교육 모델의 방향성을 잡는 역할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08년의 기사 내용과는 달리 2017년의 조사 결과에서 두드러지는 부분은 냉담신자들이 지닌 신앙에 대한 태도에서 엿볼 수 있다. 곧 이들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여전히 가톨릭 신자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가톨릭 신자들의 탈 제도적 종교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교회의 전례에 참여하는 것만이 종교 생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모습이다. 이는 개인주의가 심화되고 종교적 다원주의가 강조되고 있는 사회의 반영이기도 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교회 교육의 언어도 신학적 언어만이 아니라 세속의 언어, 사회·문화적 언어로 표현될 수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2019년과 2020년에는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평신도사도직연구소’에서 주최하는 열린 세미나가 있었는데, 모두 ‘시노달리타스(Synodalitas)’(Song, 2020: 5-36)에 집중된 세미나였다. ‘시노달리타스’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강조한 친교의 교회론에서 유래된 개념으로서 신자들 공동체 간의 ‘공동 합의성’, ‘공동 식별 여정’ 등으로 번역될 수 있다.

특히 세미나에서는 시노달리타스-공동합의적 교회 실현을 위해서는 교육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교회 내에서 시노달리타스에 집중한다는 것은 하느님 백성인 교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교육하고 이에 따라서 교회 내 구성원들이 교회의 일에 참여하는 시스템을 쇄신한다는 의미이다. 특히 2019년 세미나에서 청년 패널로부터 나온 요청 중에서 주목되어야 할 점은 공정과 양방향 소통의 필요성에 관한 것이다. 교회 내 청년을 위한 프로그램에 청년이 없는 현실은 공정과 소통이라는 이슈에 민감한 청년 세대들에게 기성세대의 정의나 당위를 강요하는 일방적인 교회의 모습 때문임을 지적한다(Kim, 2019: 68-72).

지금까지 본 연구는 한국가톨릭교회의 신자 재교육에 대한 교회 안의 요청을 정리해 보았다.

이제 생태 위기 극복이라는 교회 밖의 시대적 요청에 대하여, 가톨릭 보편교회로부터 출발하여 한국가톨릭교회로 이어지는 생태 위기에 대한 대응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한계점을 살펴본다.

2. 생태 위기의 시대적 요청에 응답하는 교육의 필요성: 가톨릭 보편교회의 대응

21세기 들어서면서 교회는 생태 위기의 상황을 맞이한 지구의 문제를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가톨릭교회가 교황의 문헌을 통하여 현대의 생태 문제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표명하는 시기는 20세기 후반에 이르러서였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1987년 회칙 「사회적 관심」(*Sollicitudo Rei Socialis*)은 세상에 생태적 회심을 요청하고, 제23차 세계 평화의 날 담화 「창조주 하느님과 함께 하는 평화, 모든 피조물과 함께 하는 평화」(1990.1.1.)(CBCK, 1989.12.8.)는 인류의 평화가 생태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기를 촉구하며 생태계의 위기는 도덕 문제이며 공동 책임을 요구하는 것임을 강조한다(Hwang, 2011: 98-119). 1991년에 반포된 사회회칙 「백주년」(*Centesimus annus*)(CBCK, 1991.5.1.)에서도 교회의 생태적 관점이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과도한 소비 문제가 생태학적 문제와 연결됨을 지적하며 자연생태학, 인간생태학, 노동의 사회생태학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도록 촉구한다. 후임인 교황 베네딕토 16세도 이러한 관점을 이어받는다. 제40차 세계 평화의 날 담화 「평화의 중심인 인간」(2007.1.1.)(CBCK, 2006.12.8.)은 평화생태학을 언급하면서 자연 생태학, 인간생태학, 사회생태학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2009년 회칙 「진리 안의 사랑」(*Caritas in Veritate*)(CBCK, 2009.6.29.)은 같은 맥락에서 생태 가치의 내면화와 복음 실천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메시지들은 가톨릭교회 자체 내에서 생태 문제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소명 의식을 갖도록 독려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그러나 세계적인 가톨릭 생태운동으로 이어지지지는 않았다.

세계가톨릭기후행동(Global Catholic Climate Movement, GCCM)의 정신적 모태가 된 것은 2015년의 교황 프란치스코의 회칙 「찬미받으소서」(*Laudato Si*)(CBCK, 2015.5.24.)였다. 이 회칙은 사회교리의 연속선상에서 가톨릭교회의 첫 생태회칙으로 대표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현대의 생태적 위기에 대하여 경각심을 일으키면서,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지구’ 곧 ‘공동의 집’을 제대로 돌보기 위해서는 환경에 대한 관심과 생태적 회개를 통한 실천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그러나 교황은 생태학적 소명에 부응하는 회칙의 모든 내용들이 가톨릭 신앙으로부터 고유하게 나온 것이라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많은 과학자들, 철학자들, 신학자들, 시민 단체들”을 통해 “교회의 사유”(Pope Francis, 2015: 16)가 풍요롭게 되었음을 언급하고, 종교 또한 “통합생태론과 온전한 인류 발전을 위하여 커다란 이바지”(Pope Francis, CBCK trans., 2015: 52)를 할 수 있음을 긍정적으로 드러내면서, “우리의 공동의 집에 관하여 모든 이와 대화를 나누고자”(Pope Francis, CBCK trans., 2015: 12) 하는 열린 태도와 협력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찬미받으소서」의 반포와 비슷한 시기인 2015년 1월 조직된 세계가톨릭기후행동은 회칙에서

드러난 교황의 환경에 대한 정신에 기반으로 둔 실천적 생태운동이다. 이 운동은 가톨릭 정신으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더욱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2021년 7월 29일에 ‘찬미받으소서 운동’(Laudato Si Movement, LSM)으로 명칭을 변경한다(Good News, 2023.2.21.).

회칙이 반포된 2015년에 교황 프란치스코는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을 제정하는데, 본래 이 기도의 날은 정교회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매해 9월 1일에 지내오던 날이었다. 이는 가톨릭교회의 생태 위기 극복에 대한 동참의 의지를 표명하는 동시에 정교회와의 일치와 연대를 기대한다는 취지의 반영이었다. 이후에도 생태 문제에 관한 이웃 종교지도자들과의 담화와 공동성명을 통한 교황의 연대는 계속되었다. 2017년 9월 1일 교황은 동방정교회 바르톨로메오(Bartholomew) 총대주교와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 공동 담화(CBCK, 2017.9.1.)’를 발표하기도 하였으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2021년 11월 1일-12일)를 앞두고 있던 2021년 9월에는 가톨릭, 동방정교회, 영국 성공회의 수장이 공동으로 기후변화에 관한 공동성명 ‘지구의 울부짖음에 귀 기울입니다’를 내면서 지구의 미래를 위한 긴급호소에 나서기도 하였다(Vatican News, 2021.9.7.).

더 나아가 프란치스코 교황은 가톨릭 보편교회 차원의 계획과 그 구체적인 추진을 위하여 2016년에 자의교서 「인간 발전」(*Humanam Progressionem*)을 통해 ‘온전한 인간 발전 추진을 위한 부서’를 설립하였다(CBCK, 2016.8.17.). 코로나 팬데믹이 도래하면서 교황은 ‘2020-2021 찬미받으소서 특별 기념의 해’(2020년 5월 24일부터 2021년 5월 24일)를 선포하는데, 여기서 이 부서가 주관이 되어 회칙 「찬미받으소서」를 이정표로 삼아 생태적 회개의 실천을 명백히 강조하는 일련의 공동 계획을 제안하고 ‘우리와 함께 여기’ 참여하도록 모든 이를 초대하였다(CBCK, 2020.6.5.). 특별 기념의 해가 끝나고 바로 이어진 2021년 5월에 인간 발전 추진을 위한 부서는 우선적으로 가정, 교구, 학교, 대학교, 병원/보건소, 기업/농업, 수도회 등의 기관들을 「찬미받으소서」의 정신에 따른 통합생태론의 7년 여정에 착수하도록 초대한다(Catholic News Here Now, 2021.6.8.).

그리고 2023년 10월 4일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축일에 세상에 드러난 교황의 권고 「하느님을 찬양하여라」(*Laudate Deum*)는 2015년의 「찬미받으소서」의 반포 이후 8년 만에 나온, 생태운동의 통찰을 잇는 두 번째 교회 문헌이다. 교황은 현 기후 위기 상황을 세계 대전에 비유하며 전 세계인들에게 전쟁을 끝내고 생명이 다시금 풍성해질 수 있도록 기도할 것을 당부한다. 교황은 문헌을 통해 인간이 초래한 생태 위기의 근원으로 기술 만능주의와 인간 중심주의를 거듭 지적하고 다양한 차원에서의 대화와 “생태 교육”에 대한 활성화를 끊임없이 촉구하고 있다(Catholic News, 2023.9.3.).

현재까지 교황 프란치스코의 실천적 행보는 전 지구적인 협력에 적극 동참하는 일로 이어지고 있다. 2020년에는 세계 기구(유엔, 유네스코 등)와 연대하는 일을 중요시 여기면서 교회와 적극적인 글로벌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교황은 2019년부터 2023년 최근까지 교육에

관한 글로벌 컴팩트(Global Compact on Education)와 같은 국제적 협력을 먼저 제안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Global Compact on Education, n.d., 7 Commitments to change the World.). 특별히 2020년 12월에 교황은 교황청립 사회학술원과 유엔이 “교육은 희망의 행위”라는 주제로 개최한 심포지엄에 영상 메시지로 함께 하면서, “현재 만연해 있는 무관심과 쓰고 버리는 문화의 세계화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Vatican News, 2020.12.16.). 교황이 교육에 관하여 세계적 연대를 통한 협력에 주목하는 것은, 교육이야말로 절망에 빠진 세상에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희망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희망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진 가톨릭 세계 시민의 양성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다.

3. 생태 위기의 시대적 요청에 응답하는 교육의 필요성: 한국가톨릭 지역교회의 대응

교황 프란치스코의 회칙 「찬미받으소서」의 반포는 한국가톨릭교회가 생태 문제를 비롯하여 교회의 생태 영성에 관심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000년대 초반부터 한국가톨릭교회의 환경 운동의 주도적 역할을 해온 주교회의는 2016년 춘계 정기회의에서 “회칙 「찬미받으소서」 발표 이후 생태계 위기에 대한 교회 내 관심을 촉구하고, 주교회의 차원에서의 ‘환경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존의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환경소위원회’를 전국 위원회로 격상시켜 ‘생태환경위원회’로 신설”(CBCK, 2016.3.17.) 하였다. 특별히 주교회의의 생태적 관심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더욱 두드러진다. 교황청의 ‘온전한 인간 발전 촉진을 위한 부서’가 요청한 2020-2021년 ‘찬미받으소서 특별 기념의 해’ 및 2021년부터 시작되는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2020년에는 ‘한국천주교 주교단 특별 사목 교서 「울부짖는 우리 어머니 지구 앞에서」’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여기에는 “사목 교서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생태적 회개에 대한 미래 방향을 제시하고, 각 본당과 위원회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에 나서야 하겠다”는 의지와 관련된 실천 지침(CBCK, 2020.10.16.)도 포함되어 있다. 실제로 2021년 여러 교구의 사목 교서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항목은 ‘생태적 회개와 생태 영성의 강조’로써 확인될 수 있으며, 모든 신자들에게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의 동참을 호소한다(Catholic News, 2021.11.28.).

주교회의는 교회 밖 세상을 향해서도 기후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고 이를 이겨내기 위한 호소를 성명서로 발표하기도 하였다. 2020년에는 한국천주교 주교단의 이름으로 「기후위기, 지금 당장 나서야 합니다」를(CBCK, 2020.5.8.), 2021년에는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생태환경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탄소중립’관련법 제정을 촉구합니다」를 내놓았다(CBCK, 2021.8.24.).

한편 한국가톨릭교회의 환경운동은 「찬미받으소서」 반포 이전에도 존재하고 있었으나 전국

적으로 조직체계를 갖추지는 못했다(Catholic News, 2018.11.11.). 그러나 전 지구적 기후 위기 상황에 맞서 2019년 185개국에 동참한 ‘기후파업(Climate Strike)’과 연계하여 출범한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많은 가톨릭 단체들, 특히 수도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한국가톨릭교회는 범시민사회와의 연대에 동참하고 있다(Climate-Strike, n.d., Introduction to and Participation in Climate Crisis Emergency Action.). 여기에 참여하는 단체이자 ‘세계가톨릭기후행동’이며 ‘찬미 받으소서 운동’과 연대하는 ‘한국가톨릭기후행동’(GCCM KOREA)은 전국적이고 지속적인 조직으로 확산되는 단체로서 주목할 만하다. 우선 조직과 운영에 있어서 사제, 수도자, 평신도, 청년 4인 공동대표가 체제를 갖추고 있고, 농민, 여성, 노동, 복지, 청년, 청소년, 언론, 교육 등 분야별 대표들과 한국가톨릭교회 주교회의와 지역 교구의 실무자들이 고르게 참여하는 등 이 단체는 기존의 환경운동 조직에서 한층 발전된 모습을 보여준다(GCCM KOREA, n.d., Articles of Incorporation. Chapter 2. Organization.). 2019년부터 준비되어 2020년 2월, ‘한국 종교계 기후 행동의 첫 번째 사례’(Global News Agency, 2020.9.24.)로 시작한 ‘한국가톨릭기후행동’은 같은 해 4월부터 2023년 현재까지 금요 기후 행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또한 ‘JPIC 운동’(Justice, Peace and the Integrity of Creation)은 한국가톨릭교회 내 생태운동의 큰 축을 담당한다. 원래 JPIC는 개혁적 장로교 연합체인 세계개혁교회연맹(World Alliance of Reformed Churches)으로부터 제안되어 1983년 밴쿠버에서 열린 세계교회협의회 총회(World Council of Churches)에서 채택된 에큐메니컬 교회 운동이다(Catholic News Here Now, 2015. 10.5.). 이 운동은 정의(Justice)·평화(Peace)·창조보전(Integrity of Creation)이라는 세 가지 주제의 상호의존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인간발전문제와 생태문제를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통합생태론의 시각과 결을 같이한다. JPIC는 1990년에 한국가톨릭교회에 도입되어 교구 조직 내에도 존재하지만 수도회를 중심으로 더욱 활성화되어 있다. 또한 JPIC는 한국가톨릭기후행동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동시에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참여하기도 한다(Cho, 2022: 18-28).

다른 한편 2021년 9월에 있었던 수원교구의 ‘탄소중립선포’는 2030년까지 교구 222개 본당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204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실천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정부의 기준보다 높은 탄소 감축 목표에 종교계를 넘어서 시민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The Hankyoreh, 2021.9.13.). 또한 2016년에 창립된 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 생태사도직 단체 ‘하늘땅물벗’(Catholic News Here Now, 2021.6.8.)과 최근 (2023년 8월)에 출범된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 산하 ‘생태영성실천사업단’은 평신도들이 중심이 되어 교구와 본당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특별히 후자는 “평신도 참여를 이끌어내기 쉬운 단체의 특성을 활용해 생태 영성 탄소중립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생태 사도로 활동할 인재 양성에도 힘쓴다”(Catholic News, 2023.9.17.)는 포부로 생태영성 실천의 미래를 밝히고 있다.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은 전국 교구 신자들과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생태 영

성 탄소중립 아카데미”의 운영이며, 교회를 넘어 지방자치단체와의 연대를 추진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Good News, 2023.8.23.).

그러나 기후 위기에 대한 인식과 실천에 대한 한국가톨릭교회의 현실은 아직 성숙하지 못하다(Catholic News Here Now, 2016.12.5.). 이를 잘 보여주는 최근의 자료는 지난 2021년 1월 한국가톨릭기후행동이 출범 1주년을 맞아 신자용, 수도자용, 성직자용 3가지로 나누어 설문 조사한 후 발표한 「기후 인식 설문조사 결과분석 보고서」(GCCM KOREA, 2021.3.12.)이다.

보고서는 신자들이 회칙 「찬미받으소서」에 대해서 알고 있는 비율은 절반 정도 되지만,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면서도 실천하는 활동에는 적극적이지 못하는 상태를 지적한다. 이에 가톨릭기후행동은 기후 위기 개선에 구조적으로 접근하는 실천 방법과 동기 부여를 위해 신자교육이 절실히 요구됨을 확인하고 있다. ‘찬미받으소서 특별 기념의 해’를 지내는 기간의 중반부에 설문조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신자들이 주교회의와 교구에서 발표하는 메시지들을 잘 모르거나 공감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이러한 응답은 성직자들의 응답 내용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보인다. “생태운동에 대한 교구 사회 사목이 본당과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고 있지 않음”을 시사하는 성직자들의 응답의 비율이 매우 높았기 때문이다. 이는 본당 사목자로서 역할의 비중이 높고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하다.

보고서에서 수도자의 경우는 교회의 다른 구성원들보다 기후 인식과 실천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기후 위기 대응이 개인 차원의 실천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조(시스템) 차원에서의 개선과 공동체의 변화도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지적하는 내용의 기타 응답들이 나올 만큼 기후 위기에 대한 이해도도 높았다. 수도자들은 회칙 「찬미받으소서」에서 가장 와 닿는 점을 고르라는 질문에서 교황 프란치스코가 강조한 49항(Pope Francis, CBCK trans., 2015: 42), 곧 ‘지구의 울부짖음’과 ‘가난한 이들의 울부짖음’ 그리고 ‘통합생태’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들에게 회칙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성직자와 수도자 모두 “교회의 환경 사목은 교회 사목 전반에서 요구되는 실존적 복음화 사명이라는 인식을 보이고 있다”(Catholic News Here Now, 2021.3.8.)고 평가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응답 결과에 대한 해설에서 주목되어야 할 부분은 신자들의 동기 부여가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곧 「기후인식 설문조사 결과분석 보고서」는 범 신자들의 차원에서 생태적 소명의식과 통합 생태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일상에서 소비적 삶을 지양하는 실천 방안을 구체화하며, 생태운동에 대해서 개인으로서만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협력하는 방안과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의 연대를 이룰 수 있게 하는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시사한다(Catholic News, 2021.3.14.).

4. 한국가톨릭 신자 재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위한 지침

우리는 지금까지 한국가톨릭 신자 재교육의 현재를 살피면서 한국가톨릭교회의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기초를 다질 수 있었다. 이제 앞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한국가톨릭 신자 재교육을 위한 제안으로서 다음의 내용을 제시한다.

우선 본문 1.에서 살펴본 자료들은 첫째, 예비신자 교리 이후에 신앙을 심화시켜 나갈 평생 교육 차원의 신앙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한다. 둘째, 가능한 한 신자들의 접근성에 유리한 본당공동체가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한다. 셋째, 교육의 계획과 방식에 있어서 교회가 지향하는 시노달리타스의 정신을 담아야 한다. 곧 양방향의 소통을 통해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일방적인 강의를 탈피하여 평화교육의 방식인 서로 배움의 과정이 되도록 준비한다. 넷째, 신앙과 실천의 내용들을 일상의 언어로 풀어내어 신자들이 쉽게 다가가는 교육이어야 한다.

본문 2.의 내용은 가톨릭교회의 교육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보편교회 차원에서 제시한다. 시대적 요청에 응답하는 교회를 이루기 위한 교육은 가시적인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인간의 보편적 형제애와 그리스도의 사명을 직접 연결시켜야 하는데 특별히 생태 위기의 상황을 맞이한 지구의 문제를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가톨릭 세계시민으로의 양성에 강조점을 두어야 한다. 따라서 한국가톨릭 신자 재교육을 위한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교회의 신앙교육은 개인적 차원에서 한정되지 않고 사회적이고 생태적 차원을 포괄해야 하며, 형제애를 증진하고 특별히 시대의 요청에 따라 공동의 집 지구를 보호하는 통합 생태론적 가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둘째, 유엔의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와 같은 국제협력의 방향을 접목하여 전 지구적 감각을 키우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교육의 목표는 성숙한 가톨릭 세계시민의 양성이 되도록 정해져야 한다.

본문 3.을 통해서 본고는 생태 위기의 흐름 속에서 다양한 역할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가톨릭교회의 많은 변화와 노력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가톨릭기후행동의 「기후인식 설문조사 결과 분석 보고서」의 증언은 일선 본당 신자들의 경우 아직 생태적 소명 의식까지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한다. 그나마 수도자와 성직자는 모두 환경 사목이 실존적 복음화 사명이라는 인식을 가진다고 평가하지만, 성직자들조차 중점적으로 생태적 사목으로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가톨릭교회의 이러한 현실을 드러내는 3.의 내용들은 다음과 같이 한국가톨릭 신자 재교육의 미래를 위한 요소를 제시해 준다. 첫째, 교회의 공동체적 차원에서 환경 사목에 대한 소명 의식과 통합생태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평신도들이 가톨릭 신자로서 생태 사도직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지속적이며 공동체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교육은 일상에서 소비적 삶을 지양하고 절제의 미덕을 함께 나누며 경험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가톨릭 시민교육으로서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이루며 진

행되는 교육이어야 한다.

이제 본 연구는 이러한 고찰을 바탕으로 특별히 상호 의존적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성숙한 세계 시민으로서 행동하게 하는 교육과 종교적 역할의 접점들을 이해함으로써 기존의 신자 재교육을 가톨릭 세계 시민교육의 모델로 전환하는 아이디어를 제공할 것이다.

5. 세계 시민 교육과 한국가톨릭 시민교육

1) 세계 시민 교육의 가치

세계 시민교육의 가치를 인식시키고 그 가능성을 타진하려는 사회적 움직임의 시작점은 2012년 글로벌교육우선구상회의 GDFI(Global Education First Initiative)에 참석한 반기문 UN사무총장의 발언에서 비롯되었다. 이 회의는 이후 2015년 세계 시민성에 대한 뜻을 국제사회에서 확인하고 SDGs를 공식화하면서, 인류가 향후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세계적 교육목표로 세계 시민성 함양을 가시화시켰다(Kim, Kim, 2017: 48-49). 참고로 SDGs 4.7은 세계 시민교육의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으며(Local Sustainability Alliance of Cheonan, 2020.7.28.), 2030년까지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학습자에게 이 커리큘럼을 가르치는 것을 목표로 한다(Son, 2021: 390-391). 특별히 유네스코(UNESCO)는 하나의 세계를 향한 미래를 꿈꾸는 세계 시민교육 운동의 최전선에 위치한다. 유네스코의 정의에 따르면, 세계 시민이란 평화, 정의, 다양성 존중, 인권, 관용, 배려, 민주주의 등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보편적으로 추구되어야 할 가치를 함양하고 인간의 인지적 능력과 비인지적 특성을 통하여 글로벌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시민을 일컫는다. 여기서 인지적 능력이란 창의력과 사고력 그리고 의사결정능력 및 문제해결력 등을 가리키고, 비인지적 특성은 타인 존중과 팀워크, 도전정신과 열린 마음 그리고 공감 능력을 말한다(Kim & Kim, 2017: 50).

2) 평생교육 차원에서의 한국가톨릭 시민교육

우리나라에서 세계 시민교육은 국가 교육과정에 기초하여 유·초·중등 교육에 가장 먼저 도입되었다. 국가 주도의 도입이기 때문에 하향식이라는 고정된 틀이 작용하기는 하였다. 반면 학교 밖 성인교육에서는 학교 중심의 규범적 구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세계 시민교육이 자유로운 만큼 합의된 과정이 존재하지 않아 생기는 어려움이 발견된다.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 이해교육원의 연구자료 「국내 평생교육 내 세계시민교육 이행현황 연구」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차원의 세계 시민교육의 특성 및 약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Han et al., 2019: 10-11).

첫째, 학교 교육의 경우 세계 시민교육 정책이 하향식(top-down)으로 규정됨으로써 그에 적합한 교육과정이 국가 단위에서 먼저 개발되고 개별 수업에 적용된다면, 평생교육의 경우는

모든 교육이 개별 프로그램 단위의 필요성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상향식(bottom-up) 특성이다.

둘째, 학교 교육의 경우 세계 시민교육이라는 개념이 먼저 선점된 이후 그에 맞는 교육과정들이 개발되고 시행된다면, 평생교육 영역에서는 그런 선점된 개념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 단지 다양한 글로벌 쟁점들이 현장의 필요성과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소통을 통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전면화되는 과정에서 세계 시민성을 담지하는 다양한 방식의 시민교육의 존재가 귀납적으로 점차 그 모습을 구체화한다.

셋째, 학교 교육에서의 세계 시민교육은 대부분 이미 확보된 학생들을 전제로 수업이 기획되고 시행되며 그 결과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반면, 평생교육에서는 이런 과정 자체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시의적절한 필요성과 흥미도가 공감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학습자를 모집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세계 시민교육이 시민들의 관심을 끌지 못한다.

넷째, 학교에서는 세계 시민교육이라는 강의가 비록 초기에는 완성도가 떨어지더라도 점차 교육이 진행돼 가면서 세련도와 적합도를 높여갈 수 있지만, 평생교육 영역에서는 이러한 과정 자체가 불가능하다. 처음부터 불완전한 프로그램은 폐강될 확률이 높다(Han et al., 2019: 11).

본 연구는 이러한 네 가지 특성들을 바탕으로 한국가톨릭 신자 재교육 차원에서 세계 시민교육의 방향성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는 일반 평생교육이 개별 프로그램 단위의 필요성에 의해 결정되는 상향식(bottom-up) 특성을 가진다는 점인데, 우리의 필요는 상향식과 하향식을 조화시키는 교육과정이어야 할 것이다. 먼저 하향식 교육과정은 생태 위기의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신앙교육의 자료들을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한국가톨릭교회가 생태 영성에 관심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한 교황 프란치스코의 회칙 「찬미받으소서」를 교재로 선정하고, 한국가톨릭교회 내의 여러 단체 및 전담 기구, 위원회의 활동과 국제기구(유엔, 유네스코 등)와의 실천적 행보에 대한 다양한 기사 및 자료 등을 주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하여 그 흐름을 따라가되 기존의 교리교육과 같은 일방향 강의방식의 교육 비중은 줄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에 더하여 상향식으로 교육생들이 생태 위기 환경 보존에 대한 각종 뉴스와 인터넷 자료 등을 함께 공유하면서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나눌 주제를 선정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다. 이 상향식의 과정들은 교육 참가 그룹에 따라 교육의 분위기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둘째는 세계 시민교육의 개념이 교육과정 안에서 연역적으로 드러나는가 귀납적으로 드러나는가 하는 문제인데, 우리의 경우 ‘생태 위기에 직면한 가톨릭 시민이란 무엇인가’의 의미를 먼저 설명하고, 학습의 과정 안에서 그 의미를 체계화 해가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교육생들이 ‘가톨릭’이라는 말에는 ‘전체성’, ‘온전성’, ‘보편성’이라는 뜻(Catechism of the Catholic Church, 2013: 353)이 이미 전제해 있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본래 이 말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보편성을 고백하기 위해서 유래하지만, 동시

에 “기후 위기에 대한 심각한 고민과 생태계와의 평화를 예시하고 증진”하는 일에 가톨릭 신자를 비롯한 온 세계의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가톨릭적으로) 초대되고 있음을 가리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Catechism of the Catholic Church, CBCK trans., 2013: 356). 따라서 ‘가톨릭 세계 시민교육’은 ‘가톨릭 시민교육’으로 명명되어도 좋을 것이다. 교육은 ‘가톨릭’이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시작하지만 교육이 진행되면서 학생은 스스로를 가톨릭 시민, 가톨릭 세계 시민으로 인식하게 될 것이다. 평생교육 차원의 세계 시민교육은 학교 교육과정의 교과서와 같은 구체적인 교안은 없는데, 본래 “세계 시민교육은 교육 현장에서 정형화된 방식으로 가르치는 과목이 아니기”(APCEIU, 2015: 19) 때문이다. 곧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교수법이 정형화된 교재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세계 시민교육을 위한 상·하향식 방법론과 연역적·귀납적 방법론이 구체적인 교수법과 학습 가이드를 통해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셋째, 교육을 함께 이끌어가는 학습자의 범위에 대한 문제이다. 가톨릭 시민교육은 본당공동체가 교육의 중심이 될 경우, 전 신자가 참여할 수 있는 지속적인 학습 프로그램이 되도록 본당은 각각의 상황에 따르는 운용의 묘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Kim, 2014: 111-146). 여기서는 신자 재교육의 일환인 만큼 가능한 모든 신자들이 참여하여 스스로 삶의 자리에서 문제의식을 주체화시키고 그에 따라 실천할 수 있는 ‘시노달리타스’ 혹은 ‘공동 합의성’, ‘공동 식별’의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이러한 ‘시노달리타스’ 중심의 교육은 본당의 신자들이 주도하는 구체적인 교육의 실천적 접점을 마련할 것이다. 탄소 중립의 생활화 운동을 위한 구체적 실천 방법, 곧 에너지와 소비 차원에서 그리고 수송과 자원 순환 차원에서 실천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써 현실에 적용될 것이다.

또한 모든 교육프로그램이 그러하듯 아무리 수평적인 교육방식일지라도 진행자는 반드시 필요하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가톨릭 시민교육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지도자’가 아니라 ‘진행자’라는 이름의 수평적 관계에 놓인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진행자는 세계 시민교육 진행자 교육에 참가하고 보조 진행자로서도 활동기간을 거친 사람이어야 한다. 진행자를 본당에서 자주 쓰이는 명칭인 ‘봉사자’라는 용어로 대체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동시에 이러한 봉사자를 양성하고 관리하는 본당 사목자의 역할과 비중도 중요하다. 기후 위기 대응이 개인 차원의 실천 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조적(시스템) 차원에서의 개선과 공동체의 변화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무엇보다도 본당의 사목자가 공동체적 차원에서 절실히 인식해야만 한다.

더 나아가 전 신자가 참여할 수 있는 지속적인 학습 프로그램이 되기 위하여, 한국가톨릭교회 내에서 생태환경운동을 조직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다양한 단체 및 전담 기구 그리고 각종 위원회, 예를 들어서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산하 환경사목위원회와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그리고 ‘하늘땅물벗’ 사제-수도자-평신도 모임과 ‘생태영성실천사업단’, ‘즐거운지구살리운동’,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와 탈핵천주교연대 등과 본당 차원에서의 직접적인 연대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교회 밖의 각종 시민 환경 단체 등 외부와의 연대를 통해서 환경 보존 부서와 실천

운동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본당 차원에서 정기적인 강연을 마련하는 등 신자들이 주체가 되어 환경 보존에 대한 각성과 그에 따른 실천이 구체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과 투자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최근 2023년 9월 1일에 발표된 서울대교구 교구장의 특별 사목 교서 “회칙 「찬미받으소서」를 배우고 실천합시다”의 권고, 곧 “앞으로 서울의 각 본당에 ‘생태사도직 단체 하늘땅물벗’이 설립되어 본당의 일반 성인 신자들뿐만 청소년 학생들과 청년들도 생태운동에 쉽게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권고는 한국가톨릭 시민교육의 구체적 실행을 위한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CPBC, 2023.9.1.). 특별히 최근 한국가톨릭 내에서 평신도 중심으로 발족 되어 생태실천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활동가 양성에 주력하며 본당과 지자체와의 연대를 추진하고 있는 ‘생태영성실천사업단’은 평생교육으로서 한국가톨릭 시민교육을 이끌 수 있는 모범 사례로 제시될 수 있다. 사업단은 생태 영성 탄소중립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평신도들을 생태 사도 활동가로 양성하며,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녹색 본당을 기획한다. 일차적으로는 여러 다른 본당들과의 활발한 연대를 가시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그 이후에는 교회를 넘어 지방자치단체와의 연대를 계획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 나가고 있다. 2023년 현재 이 단체는 현재 생태 사도 리더로서 탄소 중립 활동을 펼칠 인재 30명을 양성하고 있고, 11월에는 서울 명동 1898 광장에서 인식개선 사업을 개최하는 등 아주 구체적으로 일선 본당의 참여를 현실화시키고 있다.

넷째는 ‘교육의 질’에 관한 문제인데, 신자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상황에서 진행되는 가톨릭 시민교육은 ‘지구’라는 ‘공동의 집’을 빌려 살아가고 있는 교회 신앙인들 자신을 쇠신하는 중요한 작업인 만큼 참가자들의 교육 만족도가 높아지도록 열과 성을 다해야 한다.

교육의 질과 관련하여 유네스코는 『21세기 교육을 위한 새로운 관점과 전망: 유네스코 21세기 세계교육위원회 종합보고서』에서 세계 시민 평생교육 학습의 4가지 근간에 대해서 언급한다. 곧 ‘알기 위한 학습(Learning to know)’과 ‘행동하기 위한 학습(Learning to do)’ 그리고 ‘함께 살기 위한 학습, 타인과 같이 살기 위한 학습(Learning to live together)’과 ‘존재하기 위한 학습(Learning to be)’(International Commission on Education for the Twenty-first Century, Kim trans., 1997: 107-123)이 그것이다.

특히 한국가톨릭교회 내 JPIC 운동은 교육적인 면에서 유네스코가 지향하는 4가지 평생 학습의 근간에 충실하다는 점 그리고 참가자 스스로의 노력과 실천에 의해서도 그 교육의 질이 고도화된다는 점에서 한국가톨릭 시민교육을 이끌 수 있는 또 다른 모범 사례로 제시될 수 있다. JPIC 운동은 우선 사회정의, 생명 평화 등의 인간 발전 문제와 생태 문제를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통합적으로 인식하고자 하는 ‘알기 위한 학습’을 선행한다. 또한 다양한 주제들이 생태 위기 감수성을 총동원한 사회·정서적 영역에서 이루어져 참가자가 직접 수행해야 할 일을 소홀하게 여기지 않게 하는 ‘행동하기 위한 학습’에 중점을 둔다. 기도하기를 통해서도 지구 사랑

의 원천을 하느님으로 고백하며 신적 섭리에 맞게 살아가려는 ‘존재하기 위한 학습’이 이루어진다. 더 나아가 기도로써 세계 안에 존재하는 하느님과의 친교를 되새기며 범 그리스도교적인 차원으로 이어져가는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학습’의 장을 마련한다.

이러한 JPIC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교회 내의 그룹들은 시노달리타스를 그 원리로 삼는다. 이는 주교 중심, 성직자 중심의 교회만으로는 더 이상 미래를 논할 수 없다는 절실함의 반영이다(Catholic News Here Now, 2023.6.23.). 이 운동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교회의 존재 이유는 세상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세상과 대화하며 함께 공존하고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운동은 정의와 평화는 인류의 간절한 염원이지만 창조보전 없이는 모두 헛수고임을 깨달아 교회 구성원들 모두가 창조 질서에 맞는 예언자의 역할을 하도록 초대한다. 극단적인 자본주의와 소비주의 그리고 기계론적 사고방식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훼손되는 불행을 극복하기 위해 창조 질서를 보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 역할을 맡아 삶으로 실행하는 예언자의 모습을 수도자를 비롯한 모든 그리스도인이 삶으로 살아야 한다고 역설하는 것이다.

평신도 중심의 생태영성실천사업단의 활동과 시노달리타스 정신을 그 운동 원리로 삼아 세상에 예언자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JPIC 운동 등이 일선 본당의 차원에서 가톨릭 시민교육의 참 실례로서 적극적으로 주도되고 적용된다면, 이는 한국가톨릭교회 내에서 평생교육으로서 세계 시민 교육이 활발히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Cho, 2022: 25-28).

III. 결론

모두가 연결되어 있음을 절감하고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 없음을 깨닫게 한 코로나 팬데믹과 기후 위기는 한국가톨릭교회에게 그 자신이 더 이상 수동적인 가톨릭 신자 공동체로 머물 수 없도록 재촉하고 있으며 긴밀하게 연결된 세상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나누고 실천하는 길을 찾도록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특별히 한국가톨릭 신자들에게 과거 신자 재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었던 일방향·일회성 교육에 변화를 촉구한다. 우선 새로운 가톨릭 신자 재교육은 성숙한 세계 시민을 양성하는 특성을 지녀야 한다. 곧 미래의 가톨릭 신자 재교육은 신자들이 “자기 유지적인 교회의 모습을 지양하고 개방적 교회를 지향함으로써 세상 속의 교회 안에서 성숙한 가톨릭 시민이자 그리스도인으로서 공적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Kim, 2016: 91) 교육이어야 한다. 본 연구가 제시한 한국가톨릭교회 내 신자 재교육의 현실을 유추할 수 있는 자료들은 ‘지속적인 평생교육 차원의 신앙교육’과 ‘신앙과 일상의 실천이 긴밀하게 이어지는 통합교육’ 그리고 ‘시노달리타스의 공동합의성이 실현되는 서로 배움의 교육’, ‘개인적, 사회적, 생태적 차원을 포괄하는 세계시민성 함양 교육’이 특별히 일선 본당 차원에서 구체

적으로 신자들에게 요구되고 있음을 상기시킨다. 이렇게 요청되는 교육을 통하여 한국가톨릭교회의 신앙인들은 심각한 지구적 위기에 맞서서 좌절하지 않고 생태계와의 평화를 이루는 범세계적 프로그램에 적극적인 참여와 연대를 이루는 하느님 백성의 또 다른 이름으로서 가톨릭 시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별히 생태영성실천사업단의 활동과 JPIC 운동 등이 가톨릭 시민교육의 참 실례로서 일선 본당의 차원에 활발히 연계되어 적용된다면, 이는 한국가톨릭교회 내에서 평생교육이자 세계 시민 교육이 약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물론 한국가톨릭교회 내의 본당의 상황이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가톨릭 시민교육이 각 본당에 일률적으로 적용되기는 어려운 일일 것이다. 사목자들의 세심한 관심 안에서 그리고 일선 본당 평신도들의 주도로 가톨릭 시민교육이 본당과 본당들의 연합 차원에서 생태환경운동을 조직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다양한 단체 및 전담 기구 그리고 각종 위원회와 적극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며,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이 교육에 구체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References

- Catechism of the Catholic Church. CBCK(Catholic Bishops' Conference of Korea) 옮김 (2013). 가톨릭교회교리서.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 Catholic News (2017.4.2.). Commentary on the 4th 'Survey of the faithful' Religious Awareness and Religious Life'. Retrieved 2023.5.20. from https://m.catholictimes.org/mobile/article_view.php?aid=278224¶ms=page%3D1%26acid%3D824%26top%3D824.
- Catholic News (2018.11.11.). The Role of the Church for Our Common Home, Earth (I) The Yesterday, Today and Tomorrow of the Church Environmental movement. Retrieved 2023.10.10. from https://m.catholictimes.org/mobile/article_view.php?aid=300818.
- Catholic News (2021.3.14.). Catholic Climate Action Climate Awareness Survey. Retrieved 2023.10.23. from https://www.catholictimes.org/article/article_view.php?aid=355964.
- Catholic News (2021.11.28.). 2022 Pastoral Letter from the Heads of Dioceses across the Country. Retrieved 2023.9.25. from https://www.catholictimes.org/article/article_view.php?aid=362318.
- Catholic News (2023.9.3.). The Subsequent Papal Encyclical of 「Praise Be to You, My Lord」. Retrieved 2023.9.5. from https://www.catholictimes.org/article/article_view.php?aid=388611.
- Catholic News (2023.9.17.). A Church Community Reborn as an Apostle of Ecology. Retrieved 2023.11.2. from https://www.catholictimes.org/article/article_view.php?aid=389402.

- Catholic News Here Now (2015.10.5.). We need to expand the Scope of Civil Society within the Church. Retrieved 2023.10.20. from <http://www.catho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01>.
- Catholic News Here Now (2016.12.5.). The Ecological Spirituality of the Korean Catholic Church is in its Beginning Stages. Retrieved 2023.10.25. from <http://www.catho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267>.
- Catholic News Here Now (2021.3.8.). Catholic Climate Action, Survey of Church Members' Awareness of Climate Crisis. Retrieved 2023.10.25. from <http://www.catho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342>.
- Catholic News Here Now (2021.6.8.). Laudato Si 7-year Journey, Preparation for each Diocese. Retrieved 2023.11.1. from <http://www.catho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599>.
- Catholic News Here Now (2023.6.23.). JPIC Movement and Synodalitas. Retrieved 2023.11.10. from <http://www.catho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249>.
- CBCK (1989.12.8.). Pope John Paul II, Message for the 23th World Day of Peace "Peace with God the Creator, Peace with all Creation". Retrieved 2023.6.18. from <https://cbck.or.kr/Documents/Pope/402226>.
- CBCK (1991.5.1.). Pope John Paul II, 「Centennial」(*Centesimus annus*). Retrieved 2023.6.18. from <https://cbck.or.kr/Documents/Pope/400102>.
- CBCK (2006.12.8.). Pope Benedict XVI, Message for the 40th World Day of Peace "Humans are the Center of Peace". Retrieved 2023.7.14. from <https://cbck.or.kr/Documents/Pope/401973>.
- CBCK (2009.6.29.). Pope Benedict XVI, Love in Truth(*Caritas in Veritate*). Retrieved 2023.7.14. from <http://ebook.cbck.or.kr/gallery/view.asp?seq=119959>.
- CBCK (2015.5.24.). Pope Francis. 「Praise Be to You, My Lord」(*Laudato Si*). Retrieved 2023.7.16. from <http://ebook.cbck.or.kr/gallery/view.asp?seq=214868>.
- CBCK (2016.3.17.). Results from Spring General Assembly 2016 of Catholic Bishops' Conference. Retrieved 2023.7.18. from <https://www.cbck.or.kr/Notice/13011924?page=134>.
- CBCK (2016.8.17.). [Letter of the Holy Father] Human Development(Humanam Progressionem). Retrieved 2023.8.20. Retrieved 2023.8.22. from https://web.archive.org/web/20171019163824/http://www.cbck.or.kr/bbs/bbs_read.asp?board_id=k1200&bid=13012236.
- CBCK (2017.9.1.). Joint Message of Pope Francis and Ecumenical Patriarch Bartholomew on

- the World Day of Prayer for Creation. Retrieved 2023.8.3. from <https://cbck.or.kr/Documents/Pope/13012892>.
- CBCK (2020.5.8.). Korean Catholic Bishops Message for Climate Crisis 「Climate crisis, we must act now」. Retrieved 2023.9.29. from <https://cbck.or.kr/Notice/20190465?search=%EA%B8%B0%ED%9B%84%EC%9C%84%EA%B8%B0&tc=title>.
- CBCK (2020.6.5.). [The Dicastery for Promoting Integral Human Development] 「Praise be to you, my Lord」 Special Commemorative Year. Retrieved 2023.8.22. from <https://cbck.or.kr/Notice/20190540>.
- CBCK (2020.10.16.). Practice Guidelines of Special Pastoral Instruction for Long-term Pastoral Planning following the 5th Anniversary of the Promulgation of the Encyclical 「Praise Be to You, my Lord」. Retrieved 2023.9.23. from <https://cbck.or.kr/Notice/20201376?gb=K1200>.
- CBCK (2021.8.24.). We call for the Enactment of a “Carbon Neutrality” Law that can properly respond to the Climate Crisis. Retrieved 2023.9.30. from <https://cbck.or.kr/Notice/20210824?gb=K1200>.
- CBCK (2022.12.31.). Korean Catholic Church Statistics 2022. Retrieved 2023.10.22. from <http://ebook.cbck.or.kr/gallery/view.asp?seq=214957>.
- Climate-Strike (n.d.). Introduction to and Participation in Climate Crisis Emergency Action. Retrieved 2023.10.24. from <http://climate-strike.kr/together/>.
- CPBC(Catholic Peace Broadcasting Cooperation) (2008.3.9.). [Our Church Now] Re-education of the faithful (1). Retrieved 2023.5.9. from <http://m.cpbc.co.kr/paper/view.php?cid=241437>.
- CPBC (2008.03.16.). [Our Church Now] Re-education of the faithful (2). Retrieved 2023.5.9. from <http://m.cpbc.co.kr/paper/view.php?cid=237451&path=200801>.
- CPBC (2023.9.1.). 「Praise Be to You, My Lord」 is Our Milestone. Retrieved. 2023.11.3. from <https://news.cpbc.co.kr/article/1111681?division=DAUM>.
- GCCM KOREA(Global Catholic Climate Movement Korea) (2021.3.12.). Catholic Climate Action, Survey of Church Members’ Awareness of Climate Crisis. Retrieved 2023.10.25. from <http://www.gccmkorea.kr/massmedia/3789>.
- GCCM KOREA (n.d.). Articles of Incorporation, Chapter 2. Organization. Retrieved 2023.10.25. from <http://www.gccmkorea.kr/org/292>.
- Global Compact on Education (n.d.). 7 Commitments to change the World. Retrieved 2023.9.25. from <https://www.educationglobalcompact.org/en/commitments/>.

- Global News Agency (2020.9.24.), In the Era of Climate Crisis, Religious Leaders also step forward. Retrieved 2023.10.19. from <http://www.globalnewsagency.kr/news/articleView.html?idxno=215212>.
- Good News (2023.2.21.) Korea Catholic Climate Action, Discussion on changing the Name of 'Laudato Sí Movement'. Retrieved 2023.10.4. from https://news.catholic.or.kr/WZ_NP/section/view.asp?tbcode=SEC08&seq=182431.
- Good News (2023.8.23.). Eco-Spirituality Praxis Group launched. Retrieved 2023.10.5. from https://news.catholic.or.kr/WZ_NP/section/view.asp?tbcode=SEC05&seq=188059.
- Hwang, J. R. (2011). On the Modern Catholic Church's View of Ecological Development. *Theological Perspective*, 173(6), 90-132.
- International Commission on Education for the Twenty-first Century. *Learning: the Treasure within: Report to UNESCO of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Education for the Twenty-first Century*. 김용주 외 번역 (1997). 21세기 교육을 위한 새로운 관점과 전망. 서울: 오름.
- Kim, J. H. & Kim, S. J. (2017). Critical Review on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Programs for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55(3), 45-66.
- Kim, N. H. (2016). A Study of Education Methodology for the Laity in the Korean Catholic Church in Comparison with Germany. *Theological Perspective*, 192(3), 42-79.
- Kim, S. J. (2019). Panel Comment 4 - The Reality and Synodality of Youth in the Church. Open Seminar - To realize the Synodality of the People of God. *Seoul Archdiocese Lay Apostolate Institute*, 1(12), 68-72.
- Kim, Y. K. (2014). Activation Factors of Pastoral Care in Parishes. *Theological Perspective*, 186(9), 111-146.
- Local Sustainability Alliance of Cheonan (2020.7.28.). Introducing the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UN SDGs). Retrieved 2023.10.13. from <https://blog.naver.com/cheonan21/222044007474>.
- Naver Knowledge Encyclopedia (2022.3.8.).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Retrieved 2023.3.2. from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31820&cid=43667&categoryId=43667>
- Pope Francis. *Praise be to you, My Lord*. CBCK 옮김 (2015). 찬미받으소서. 서울: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
- Son, K. M. (2021). The Case of Christian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Theology and Praxis*, 75(7), 389-412.

- Song, Y. M. (2020). Study on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Sensus Fidei’ and ‘Synodality in the Life and Mission of the Church’. *The Catholic Theology*, 37(12), 5-36.
- The Hankyoreh (2021.09.13.). The deep Resonance left by the Catholic Diocese of Suwon’s ‘Carbon Neutrality Declaration’. Retrieved 2023.11.1. from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011561.html>.
- The Second Vatican Council. *Gaudium et Spes*. CBCK 옮김 (2018). 사목현장.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 Vatican News (2020.12.16.). Pope, New Global Education... Hope for Our Time. Retrieved 2023.9.11. from <https://www.vaticannews.va/ko/pope/news/2020-12/papa-francesco-videomessaggio-patto-educ-azione-simposio-onu.html>.
- Vatican News (2021.9.7.). Pope Francis, Ecumenical Patriarch Bartholomew I, and Archbishop Welby of Canterbury “Let us listen to the Cry of the Earth”. Retrieved 2023.8.5. from <https://vaticannews.va/ko/pope/news/2021-09/francesco-bartolomeo-welby-messaggio-ecumenico-per-il-pianeta.html>.
-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2015). 유네스코가 권장하는 세계시민교육 교수학습 길라잡이. 서울: 디자인 프리즘. (Translated in English) APCEIU(Asia-Pacific Centre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2015).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Teaching and Learning Guide Recommended by UNESCO*. Seoul: Design Prism.
- 조현철 (2022). JPIC, 예언자의 세상 읽기. 서울: 생활성서. (Translated in English) Cho, H. Ch. (2022). *Read the Prophet's World*. Seoul: Living Bible.
- 한승희, 고영상, 이재준, 이은정 (2019). 국내 평생교육 내 세계시민교육 이행현황 연구. 유네스코 아시아 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연구보고서, 1-216. (Translated in English) Han, S. H., Koh, Y. S., Lee, J. J. & Lee, E. J. (2019). *A Study on the Implementation of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in Lifelong Education*. Asia-Pacific Centre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Research, 1-216.